

# 지역 청소년 꿈 지키며 문화복지 선도

## 창립 16주년 맞은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창원지역 청소년 육성사업의 선구자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사장 원정)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11월 20일 창원 성주사에서 열렸다.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은 청소년 포교의 황무지와 같았던 경남에 16년 전 처음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곳. 창원 성주사 주지였던 원정 스님의 청소년 포교 발원으로 시작해 현재 봉림생명교육센터, 진해 청소년수련원, 마야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기관 9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창원시니어클럽과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노인복지 활동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재단이사장 원정 스님은 기념사에서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은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

기 위해 설립됐지만 지금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소통하며 공존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행보는 열정적일 정도다.

재단은 창원시와 연계해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펼칠 뿐 아니라 봉축일 맞이 반야심경 청소년 어

### 경남 최초 청소년 문화 재단

### 9개 복지 기관 위탁 운영도

### 시니어 지원 활동도 적극 나서

울림 한마당, 어린이 보리수 캠프, 성주사 보리수 학교 등을 선보이며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의 봉사모임을 조직, 마을 벽화그리기 등 지역 나눔 실천을 독려하면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키우는데도 앞장선다.

지난해부터는 창원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진해청소년전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청소년 사업 인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의 16주년 기념식이 11월 20일 창원 성주사에서 열렸다.

프라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한가람문화재단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일찍부터 뛰어들어 창원지역내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이며 청소년 문화복지의 선도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활동 덕분에 자칫 수도권에 비해 뒤쳐질 수 있는 지방 청소년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신채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이뤘다고 더불어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그 예다.

정철영 창원시 복지문화여성국장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단체를 이끌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재단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는 재단 산하 우수기관 및 우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개최됐다. 한가람 우수 기관상은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이, 한가람 우수 직원상은 방과후 아카데미 '해뜨는 교실'의 전영미 선생님과 창원노인 일자리카센터 김영목 과장에게 수여됐다. 이어 한가람 청소년상은 반림중 3학년인 이은총 학생, 한가람 시니어상은 창원시니어클럽 김진수 어르신에 받

하성미 기자

# 故황수영 박사 공덕 추모비 제막

## 11월 5일 경주 문무왕릉 이견대 부근서 봉황

故황수영(1918~2011) 박사의 공덕 추모비 제막식이 11월 15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분리, 경주 문무대왕릉이 내다보이는 언덕 위에서 열렸다. 추모비는 황수영 박사의 스승인 우현(玄) 고유섭 추모비 바로 옆에 자리 잡았으며, 내년 3월에는 진흥섭의 추모비도 세울 계획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나선화 문화재청장, 최양식 경주시장, 윤장섭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김동현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이호관 前 국립전주박물관장,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등 문화계 인사 120여명이 모였다. 오니시 슈야(大西修) 일본 규슈대 명예교수 등 일본 제자들도 참석했다.

추모비는 황수영 박사의 제자인 정영호 한국 교원대 명예교수와 그 후학들이 추모비건립위원회 공동



故 황수영 박사 추모비 제막식이 경주시 감포읍 문무왕릉 근처에서 열렸다.

위원장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장수 죽림정사 회주 도문 스님, 한국문화사학회, 동국대 등과 함께 뜻을 모아 건립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추모비가 문무대왕 수증릉을 바라보는 곳에 세워진 일이 뜻 깊다"고 말했다.

추모비 제작 공동대표인 정영호 교수는 "초우 황수영 박사의 유적 사랑과 애정은 후학들의 모범이 되었다"며 비문을 읽어내려갔다.

또한 동국대 교수 및 동국대 총장을 지내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불교미술의 탐·불상·공예 등 광범

위 분야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황수영 박사

다. 추모비 제막은 문화와 유적을 사랑한 분을 기리는 교육현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황수영 박사(1918~2011)는 개성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東京)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개성 박물관장으로 일하며 故 진흥섭 박사, 故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과 함께 한국미술사학계의 초석을 놓은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하성미 기자

# "차 명상 통해 환경적응력 높여"

## (사)한국 차 명상협회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차명상협회(이사장 원하)는 11월 17일 통도사 설립전에서 '차 명상의 현대적 활용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차명상협회 이사장 원하 스님, 경성대 김경일 교수, 초의차명상원장 지장 스님, 광행복차명상원장 선업 스님 등이 참여했다.

원하 스님은 '행다선(行茶禪)에 대한 천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순납과 주인이 있는 행다법에서 역할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두 주체는 상호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거울과 같이 서로를 비추는 무분별한 두 주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하 스님은 무분별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아차림, 행다 과정을 무상함으로 관찰하기' '순납과 관계성 사유를 통해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자세' 등을

강조했다. 이어 '불교상담의 기초'에 대해 발표한 김경일 교수는 "심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불교적으로 고찰했을 때 유아(有我)론적 인식에서 집착과 자기애가 출발한다"며 "불교의 무아(無我)이론은 욕망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 주장했다.

"자각을 통한 변화의 원리"란 제목으로 발표한 지장 스님은 긍정의 힘과 그 자각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지장 스님은 "긍정적으로 자신을 자각하며 이미지 화하고 구체적 실천 내용을 상상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업 스님은 '차담명상 치유의 실제'에 대해 설명하며 "차담명상의 목적은 인간의 신체·정서적 힘을 본인의 목적·소망과 조화시켜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 문경 백봉사 9층석탑 및 사천왕 점안식

##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총무원장 대봉) 문경 백봉사와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백봉사 경내 9층석탑 및 사천왕 점안법회와 나라안정 평화 기원 대법회'가 열렸다.

11월 15일 열린 이 법회에는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소속 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과 한국불교조계종 각 사찰 주지, 지역기관, 단체장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봉행했다.



문경 백봉사 9층석탑 점안식

백봉사 창건주 대봉 스님은 "무명을 제거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혀가자"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 대불청 '구법 순례의 길' 회향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박경수, 이하 부산대불청)는 '선우들과 함께하는 53사찰 청년 구법 순례'를 11월 15일 범어사 설립전에서 회향했다. 부산대불청은 2012년 9월 15일 범어사를 시작으로 부산에 있는 총 53개의 사찰을 순례하며 2년 3개월 간 매일 1, 3주 토요일에 법회를 열었다.

회향법회에는 법회, 참선 및 범어사 흥선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으며 부산 대불청 회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마무리됐다.

박경수 회장은 "처음과 달리 여법한 모습으로 성장한 청년들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도 더 자주 모여 공부하고 정진하자"고 소회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 통도사 국제 템플스테이관 상량식

## 2015년 12월 공사 마무리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가 11월 19일 국제 템플스테이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 스님과 주지 원산 도명 스님, 총무국장 동진 스님 및 금부종합건설 황인관 사장, 한신 황민하 사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 원만한 불사 건립을 발원했다.

올해 5월 착공한 국제 템플스테이관은 사업면적 842.60㎡에 건축면적 650.72㎡로 재가선원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1채와 기계실 1채, 요사채 3동이 들어서게 된다. 내년 12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통도사 템플스테이관은 불법전 아래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템플스테이 참여인원에 비해 협소한 공간 탓에 체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속도 역시 부족했다. 통도사는 사찰을 찾는 외국인 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들을 위한 국제 포교 활동 및 불교 문화재·전통 홍보를 목적으로 템플스테이 불사를 결정하게 됐다.

향후 템플스테이관은 양산시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도사는 이를 위해 양산시 유관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시탑전(待塔殿) 역시 불사중이다. 시탑전은 노스님들의 주석처로 현재 가동과 나동, 두동을 나눠서 건설 중이며 스님들의 수행과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템플스테이관 상량식 장면

영축전통문화관 보광선원을 짓기 위한 토목 공사도 진행 중이다. 선방 1채, 요사채 3동, 다락실, 세면실 등 총 9채의 대규모 공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도사는 지난 7월 요양병원 기공식을 진행한 바 있다. 법당, 진료실, 재활·물리치료실, 중환자실을 비롯 200개의 병상을 갖춘 예정이다. 모든 중장 불사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부산 생명나눔 환우 돕기 콘서트 개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2월 3일 오후 2시 '제9회 100원 희망 불꽃 콘서트'를 부산 동구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환우와 가족, 부산 시민, 자원봉사 관련 유관 단체 및 기

업 봉사 단체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2014 생명나눔의 날"을 기념하며 개최하는 '100원 희망불꽃 콘서트'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우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과 일반 참가자에게 '100원 희망저금통'을 배

포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한 행사다.

행사 1부 '간절한 기도'에서는 환우들의 사연 소개와 장기기증자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이다. 2부 '희망의 노래' 콘서트에서는 바이올린 연주 등 유진박의 힐링 콘서트 및 BTN 남성중창단의 공연이 마련된다. (051)853-0429 하성미 기자

# 세계불교 종단 연합회(WBOA) Association of world Buddistion

세계불교 종단 연합회는 원효 성사의 통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불교국가간 미래 사회의 불교 정립을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과 불교 교리를 통한 인류 구원의 새 장을 열어가는 국제불교 신행 단체입니다. 인류 공영의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고 글로벌 시대의 수평화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불교 마당으로 삶의 도덕적 가치를 재 창조해가는 국제 모임입니다. WBOA에 여러 고승 대덕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십니다

불교문화창달과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 제방에서 수도에 정진하시는 고승 대덕들께 제 4회 WBOA 송년법회에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 국내에 수학중인 외국 승려는 자리관계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대전 중구 선화동 230-6 대림관광 호텔2층 한식부 042) 2211-6969 / 042) 256-1567

WBOA 총재 영공 도성 WBOA 총회장 홍산 현블